전국이 청약 광풍…초기분양률 97% '역대 최고'

6개월 내 맺은 계약률, 서울 · 수도권 100%
지방도 58.6→76.2→78.1→80.5% 상승세
"당첨=로또" 기대감에 분양 쏠림 가속화
다음주 청약 시장 '큰 장'…광풍 계속될 듯

청약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 기대로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초기분양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97.0%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분기 81.7%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 초기분양률이 100% 가까워지고 있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가구수 대비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가구수 비율로,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단지의 평균 분양률을 산출한다.

초기분양률이 100%에 육박했다는 것은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100%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1분기 99.2%에서 2분기 100%로 올랐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분양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평균 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추첨 물량이 배정된 대형 평형(97.9㎡A형)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97대 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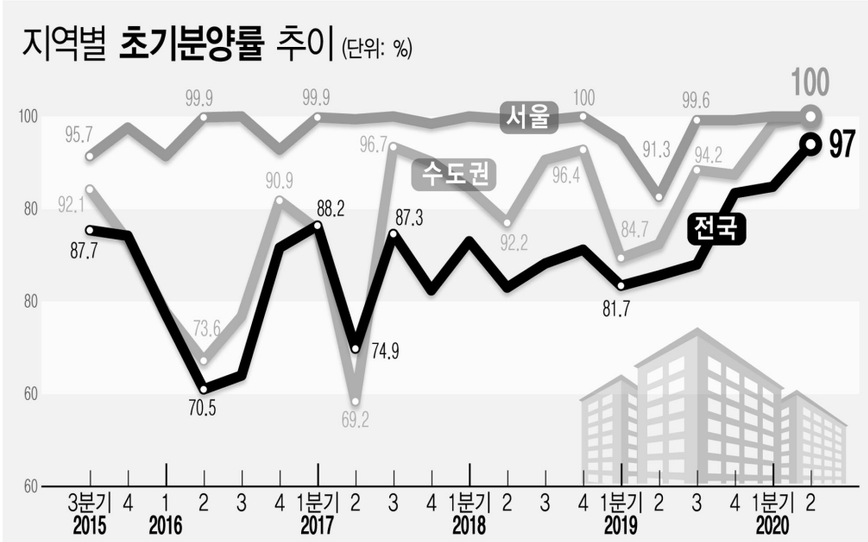
수도권 뿐 아니라 대구(100.0%), 대전(100.0%), 광주(99.4%), 부산(92.5%) 등 지방광역시도 올해 1분기 95.8%, 2분기 97.6% 등 100%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지방의 경우에도 작년 3분기(58.6%), 4분기(76.2%), 올해 1분기(78.1%), 2분기(80.5%) 등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제주(22.2%), 강원(39.3%)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분양 성적을 거둬 희비가 엇갈렸다.

이 처럼 청약시장에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분양에 당첨되는 순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 분양'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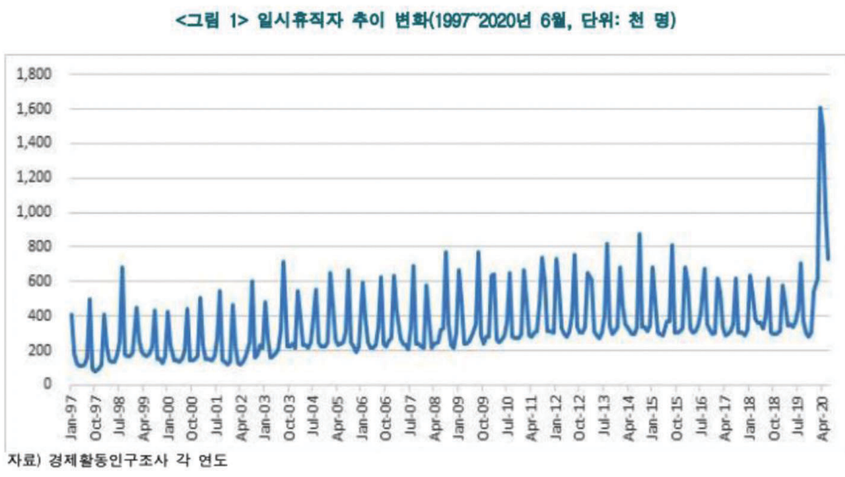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시세 보다 싼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도 적다.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가통계포털

부동산114 최태순 연구원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기존 주택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로또 아파트에 대한 소비 심리가 분양시장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지역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의 높아진 분양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지방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선옥 기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일시휴직자, IMF 때보다 증가
'취업포기자' 진입 가능성 높아

코로나19로 3~6월 일시휴직자 폭증, IMF · 금융위기 때도 전례없어
사업부진 · 조업중단 일시휴직자, 한달 후 비취업자 될 확률 최대 35%

올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일시휴직자(3~5월) 수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시휴직자들이 구직의사 있는 실업자보다는 취업포기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0년 일시휴직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올 상반기 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 3, 4, 5월의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만7000명, 148만5000명, 102만명으로,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08~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했을 때 올해와 같은 일시휴직자의 폭발적 증가는 전례가 없었다.

특히 일시휴직자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휴직자가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올해 3~5월 평균 기준으로 일시휴직자의 58.2%가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이었다. 이는 보통 사업부진 ·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 비중이 20% 전후를 기록하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달에 취업자는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시휴직자가 다음 달에 비취업자가 될 확률이 최대 35%인 것과 같다는 뜻이다.

취업자 감소는 대부분 취업포기자(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그 다음 달에 취업포기자는 0.33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해 일시휴직자 1명이 증가하면 2개월 후엔 취업자를 0.58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휴직자는 2개월 후 취업포기자를 0.39~0.49명 증가시켰는데, 일시휴직자 증가로 인해 감소한 취업자는 대부분 취업포기자로 진입했다.

올해 3~5월 일시휴직자 137만1000명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시휴직자는 26만5000명(전체 대비 19.3%)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은 24만1000명(17.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총 20만7000명(15.1%)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했으며 제조업에서는 11만1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꺼리면서 관련 산업 부문에서 특히 일시휴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서 가장 많은 36만명(26.3%)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33만2000명(24.2%)의 일시휴직자가 발생해 전문가 · 단순노동 근로자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과 대졸 학력의 일시휴직자가 많았다. 성별 분포별로는 전체 일시휴직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62.5%로 남성(37.5%)보다 높아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 부담을 줄여 일자리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등과 같이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전국 '물폭탄'에 수해차량 속출…완성차업계 지원나서

4일까지 침수차 4412건… "침수차량 시동걸면 심각한 손상"

광주기상청이 7일 오후 1시40분을 기해 광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 가운데 광주시 금호지구 내 도로가 폭우에 침수돼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침수피해 등 수해를 입은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수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수리비 할인과 무상 견인에 나서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오전9시까지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및 차량 낙하물 피해 접수 건수는 4412건에 달한다. 4일 이후에도 중부권 집중호우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완성차업체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수해지역 특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장 조치가 어려운 차량은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해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수리비용 할인은 자차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현대차는 수해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기아차의 경우 수해 차량을 폐차한 후 기아차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최장 5일 동안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한다. 렌터카 지원은 자차보험 미가입자 대상이며, 법인 · 영업용 · 화물차량은 제외된다.

현대 · 기아차는 수해 지역 특별 지원 서비스 기간 동안 수해 현장에 방문해 침수 또는 태풍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엔진 · 변속기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 외에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도 제공한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7t 메가트럭 탑차를 개조한 세탁구호차량을 신규 제작했다. 신형 세탁구호차량은 18㎏ 세탁기 3대, 23㎏ 건조기 3대, 발전기 1대가 장착돼 세탁 및 건조를 90분에 완료하고, 하루 평균 1000㎏ 규모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수해 지역 특별 지원은 현대차그룹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해 차량 무상 점검과 피해 차량에 대한 정비 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국지엠 쉐보레 역시 수해 발생 지역에 긴급출동 및 각종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차량 중 자차보험 미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의 50%를 감면해주는 등 수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파손 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차주들을 위해 다음달까지 직영 ·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차보험 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유상수리(비보험) 이용자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500만원 한도)해 준다.

쌍용차는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을 비롯한 수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정비 캠페인에 나선다.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특별정비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수리비(공임 포함)의 30%를 할인해 준다.

재난 ·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관청과 연계해 인근 서비스네트워크에 서비스전담팀을 편성하고 긴급 출동과 수해차량 무상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소모성부품을 무상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비상시동 조치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시동을 걸면 엔진이나 변속기, 그 밖의 전기 · 전자부품 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인근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긴 장마 뒤, 농산물값 폭등 기다린다

출하 감소에 수급 불안정
도매가 이미 폭등…소매도↑

유례없는 긴 장마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생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추세다.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4㎏의 도매가격은 4만2900원으로 전날 3만7100원에 비해 15.6% 올랐다. 평년(3만6080원)과 비교하면 19% 뛰었다. 같은 중량의 상추도 5만6540원으로 전날(4만5860)에 비해선 23%, 평년(3만8310)에 비해선 47.5% 폭등했다. 토마토의 경우 10㎏ 당 도매가가 2만9880원으로 평년(1만8753원)보다 59%나 올랐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 가격은 아직 오름세가 크지 않지만, 도매 가격이 오르면 소매가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곧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출하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생육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양제와 방제약 등도 최대 50% 할인 공급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서도 소비자 공급가가 널뛰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대부분 채소류의 가격이 도매가와 상관 없이 그 전과 동일했지만, 이번주부터 슬슬 판매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마트의 경우 최근 상추, 대파 등 엽채소 등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7~15% 가량 오른 상태다. 장마가 길어지며 농산물 수확 작업이 늦어지고, 밭이 유실되면서 도매가가 2배 가량 오르는 상황이라 소비자가에 영향을 미쳤다. 장마가 끝나면 후폭풍으로 도소매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양파, 마늘, 파프리카 등은 장마를 대비해 사전에 비축해 둔 덕분에 비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빠르게 대체 산지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